

기독교세계관과 한글교육의 세계화 -문화선교적 전략을 중심으로-

Christian Worldview and Globalization of Hangeul Education

-Focusing on Cultural Ministry Strategies-

강진구 고신대 글로벌교육학부 교수

I. 서론

2018년 10월, 572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정부는 한류를 확산시키는 등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7명에게 모두 화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BTS가 한글날 훈장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대중음악을 통해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아미(army)'라고 부르는 BTS의 열혈팬들이 한글 가사로 된 BTS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미'들에게 한국어는 공용어나 다름없다. '아미'들은 BTS에게 한글로 된 팬레터를 보내고 한글로 된 가사를 익숙하게 따라 부르는 모습을 유튜브 동영상상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힘입어 BTS의 소속사 하이브(HYBE)는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체계적인 한글교육과 연계시키기 위해 '하이브 에듀(HYBE EDU)'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2020년 5월 'Learn! KOREAN with BTS'라는 이름의 한글 교육 교재를 만들어 전세계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한글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한류열풍을 타고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현실이다. BTS나 블랙핑크로 대변되는 K-팝뿐만 아니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과 재미교포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가 연이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과 세계적인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서 한글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1년 9월에 공개된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세계인의 열망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는 94개국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 통신도 넷플릭스 최대 히트작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그 증거로써 5억 명 이상 등록한 미국의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듀오링고(Duolingo)'의 경우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 2주 동안 한국어를 배우려는 신규 사용자가 영국에서 76%, 미국에서 40%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문화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세계화되면서 한국어의 필요성을 느낀 세계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로 인해 한글에 대한 친밀감과 접근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에게는 한글 교육을 통해 복음을 소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온 까닭에 한국어를 배워서 취업에 활용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취업과 관계없이 한국문화를 좋아하고 한글에 관심을 갖는 유럽과 미주의 외국인들도 적지 않은 까닭에 한글을 통한 선교는 전세계를 향한 새로운 선교형태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글 선교에 대한 확고한 가치 인식과 더불어 체계적인 전략이 미흡한 데 있다. 즉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 단순한 외국어를 학습하도록 돕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글 창제의 역사와 전개를 가르치는 일이 기독교의 가치관을 전파하는 일이며, 이를 현지인들의 상황에 맞게 한글 교육을 통한 복음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양성과 교재 등에서 혁신적인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어 교육 열풍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접근했을 때 한글의 탄생으로부터 한국의 개신교 선교역사에 이르기까지 한글은 기독교적인 의미를 갖고 그 가치가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글이 갖는 기독교 역사적이며 성경적인 의미를 토대로 한국어 교육 열풍이 부는 현실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화 된 한글 교육을 통한 선교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것은 선교에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그 반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격증 소지자가 선교를 배워 현장에 투입되는 지금의 방식과 다르게 선교와 한국어 교육이 함께 있는 교육과정을 거쳐서 처음부터 특수목적의 한국어 교육자로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한 교육선교의 현장에 투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II. 한글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이해

1. 훈민정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

한글은 세종에 의해 1443년 창제되어 1446년에 반포되었다.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생일을 갖고 있다. 이것은 한글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문자로서 한글을 사용하는 개인과 사회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글의 제작 의도를 기술한 훈민정음(訓民正音) 서론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만든 의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세종의 자주정신이며, 둘째는 애민정신, 그리고 셋째는 세종의 창조 정신이다(서민정, 2011, 31). 우리말과 다른 중국 글자인 한문을 쓰는 데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에는 실용정신과 더불어 민족자주정신이 들어있다. 또한 한자를 알지 못하여 상소문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백성들이 쉽게 배워 문자가 필요한 생활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애민사상(愛民思想)을 읽을 수 있다. 아울러 한글은 인간의 음성기관의 모습을 본따 만든 매우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문자라는 사실에서 혁신적인 창조성이 그 안에 들어 있음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훈민정음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인 의미를 생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남의 나라 글자인 한자에 예속이 되어 일반인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민족의 문화적 자주성을 확보하는 일이나,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신분과 관계없이 문자를 애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한글의 정신은 곧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일면 닮은 점이 있다. 한글을 배우는 일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와 사랑에 대한 기독교 사상을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¹⁾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창조성이

발휘되었다는 점에서 그 선한 의도가 기독교 안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성경·번역 개정과 새찬송가 개발 등에 참여해 공적을 남긴 나채운은 “한글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요, 기독교 정신은 한글 정신”(나채운, 342)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옥성득 또한 초기 한국에 내한한 선교사 연구를 통하여 로스 이후 개신교 선교사와 한국인 저자들은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의 정신을 실천한 자들이었음을 밝혔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기독교를 한국화시켜서 이해했던 다석 유영모의 사상을 인용하여 ‘한글은 계시(복음)를 담는 그릇이요, 기독교 복음은 한글로 성육신했다’고 주장했다(옥성득, 2019).

훈민정음 창제에 담긴 사상이 기독교적으로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한글이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 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2. 한글 성경의 간행과 선교사의 한국어 교육

한국에 기독교가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한글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늘어나는 신도 수에 비해서 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할 외국인 선교사 숫자는 적었지만, 한글 성경 덕분에 예수를 믿는 신도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모임을 통해 한글 성경을 읽고 한글로 된 찬송가를 부르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1882년 중국 심양에서 존 로스 목사는 이응찬, 서상륜, 백홍준 등과 함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요한 복음전서’를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 1887년에는 드디어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를 발행하기에 이른다.²⁾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현지어로 먼저 번역이 되어 배포되는 경우는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 한국이 처음이다. 이는 한국이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고 조선왕조실록 같은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기록의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문기(文氣)³⁾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최준식, 6). 책을 읽어서 삶을 개선하려는 유교적인 생활방식은 한국인이라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가치이며, 당시 한글로 된 성경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초신자를 포함하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 보급의 결정적인 역할은 매서인(賣書人) 혹은 권서인(勸書人)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한글 성경과 찬송가를 팔며 복음을 전했다. 이들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글까지 가르치며 성경을 읽도록 권면하는 사람들로서 성경 교육과 한글 교육이 하나가 되도록 만든 최초의 한글 성경 전도사들이기도 하다. 이들 중에는 성경 번역에도 참가했던 서상륜도 있었는데 그는 영국성서공회로부터 최초로 이 땅에 파송 받은 권서

1) 이 논문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이해와 분석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의 불교관과 훈민정음을 통한 불교 경전의 간행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볼 때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과 의도에는 불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한재영, 2017, 87). 세종의 한글 창제 과정을 다룬 영화 <나랏말싸미>(2019)도 불교적 배경을 갖고 세종과 한글 창제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예수성교전서’를 존 로스 목사의 번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택부는 사실상 서상륜이 번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서상륜은 평북 의주 출신으로 그의 번역에는 사투리가 많고, 한문 투 말 대신에 토박이 말이 많은 점을 들었다(전택부, 139-140).

3) 이화여대 한국학대학원의 최준식 교수는 한국이 가진 문화의 기운을 문기(文氣)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문(文)은 인문과 관련이 높는데 문자의 발명이나 출판 그리고 인쇄 문화의 괄목할 성장, 기록을 중시하는 정신, 역사나 문화를 공정하게 보존하려는 수준 높은 의식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한국인의 뛰어난 문화발전에는 이 문기가 종교적이며 거칠고 야성적인 신기(神氣)와 어우러진 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최준식, 7).

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선교사들이 한국어 교육에 끼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선교사들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어 어휘들을 대폭 증가시키며 한글을 통한 근대교육을 발전시켰다. 선교사들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학교를 세우며 근대교육을 시행하였는데 교육의 언어로 사용된 것은 바로 한글이었다. 한글로 기독교 사상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화와 과학 등을 교육하였고, 교육과정 중에 새로운 한글 단어들이 필요함에 따라서 25,000단어 이상의 한국어 어휘가 추가되었다(G.H.존스, 142-143).

고종 황제의 밀사로 일제의 침략주의에 맞서 싸우며 세계에 한국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다녔던 헐버트 선교사(Homer Bezaleel Hulburt, 1863-1949)는 한글에 매료되어 훈민정음을 부활시키고 한글 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가 조선에 온 지 4년 반 만인 1891년 1월 170쪽의 '사민필지(士民必知)'를 순 한글로 출간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이며 또한 한글로 쓴 교과서였다(김동진, 81). '사민필지'는 '선비, 백성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란 뜻으로 헐버트는 이 책에서 모든 도량형 단위를 조선식으로 표기하여 조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배려했다. 즉 거리를 말하는 '리', 높이를 말하는 '척', 곡물 단위인 '석' 등을 사용하여 한반도 폭은 남북이 삼천리요, 동서가 육백리라고 썼다.(김동진, 87). 20세기가 열리기 전에 헐버트 선교사는 교육과 생활에 있어서 한글 전용의 지평을 열고 근대사상에 눈을 뜨게 한 책을 집필했던 것이다.

둘째, 선교사들은 한글의 대중화에 영향을 주어 그동안 폄하되었던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웠다. 선교사들이 오기 전만 하더라도 한글은 한국의 지식층으로부터 무시되었고, 언문(諺文)이라 하여 한자보다 못하다는 의미로 낮추어 부르기도 하였다. '사민필지' 서문에는 한글이 낮게 취급되는 당시의 상황과 한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헐버트 선교사의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다.

대저 각국은 남녀를 막론하고 칠, 팔세가 되면 먼저 천하 각국 지도와 풍속을 가르치고 나서 다른 공부를 시작하니 천하의 산천, 수륙과 각국 풍속,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지라 조선도 불가불 이와 같게 한 연후야 외국 교접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요. 또 생각건대 중국 글자로는 모든 사람이 빨리 알며 널리 볼 수가 없고 조선 언문은 본국 글자일뿐더러 선비와 백성과 남녀가 널리 보고 알기 쉬우니 슬프다! 조선 언문이 중국 글자에 비하여 크게 요긴하건마는 사람들이 요긴한 줄도 알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신여기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리오.(김동진, 85)

한글의 뛰어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었고 선교사들은 한글이 배우기 쉽고 쓰기에 편리하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보고 처음부터 그것을 다방면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성경뿐만 아니라 천로역정과 같은 기독교 서적 등 다양한 기독교 문서를 한글로 출판하자 한글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되살아났고, 신문이나 교과서, 일반 문학 서적이 한글로 출판되었다(G.H.존스, 143).

이덕주는 한글과 기독교와의 역사 관계를 논하면서 “훈민정음은 기독교에 의해 진정한 한글로 다시 태어났으며, 한국 민족에게 어둠을 넘어 빛을 전해주었다”고 말하며 “마침내 기독교로 인하여 훈민정음이 한글이 되었음”을 밝혔다(이덕주, 217).

3. 선교를 위한 한글 교육의 시의성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처럼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았던 적은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류열풍을 타고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글 가사를 익히고 싶은 사소한 욕망으로 여길 일이 아니다. 이미 한글의 가치를 한국인보다도 더 잘 아는 학자⁴⁾들이 등장했고 TV에서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외국인들을 보는 일은 새로운 일도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2019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만4천6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8월에 100만 명, 그리고 2016년 6월에 200만 명을 각각 돌파한 데 이어 외국인 250만 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 유학비자(D-2)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도 2021년 현재 1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9년 10만 명에서 20%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감소할 것이란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일이었다. 국내의 외국인 현황을 볼 때 한국은 명실공히 다문화 사회라 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어 수요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임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근거는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를 통해 나타난다. 토픽(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이라 불리는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 유학이나 한국회사에 취업을 위해서 보는 시험으로 한국어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절실한 세계인의 욕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1>

연도	1997	2006	2017	2018	2019	2020
지원자	2,692	34,028	290,638	329,224	375,871	218,869
합격자	711	16,456	171,848	185,621	208,482	100,379
누적지원자	2,692	122,455	1,836,318	2,165,542	2,541,413	2,760,282

위 통계를 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응시자 수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는 가파르게 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

세계에 불어 닥친 한국어 학습 열풍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하나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국기업에 취업하길 원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고, 또 하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가속화된 한류열풍 덕분이다. 세계 어디서나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는 젊은이들을 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1970, 80년대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영어로 팝송을 따라 부르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미국 유학과 상관없이 미국 대학에서의 영어 학습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에 해당했던 토플(TOEFEL)을 보기 위해 수많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영어 학원을 들락거린 그 시절을 생각하면 한국어가 영어만큼은 아니더라도 세계에서 대접받고 있다는 뿌듯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다.

4)한국사회에 한글의 높은 가치를 깨닫게 한 유명인사 가운데는 ‘총, 군, 쇠’의 저자이자 풀리처상 수상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가 있다. 그는 1994년 6월 디스커버리(Discovery)호에서 “한글은 그 독창성과 기호배합의 효율성 면에서 특히 돋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이며, 한글이 쓰기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었기에 학계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 불어닥친 한글 열풍은 국내나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에게는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류열풍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한 이 시점은 한국어를 접착점으로 삼아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생활로 연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인 선교사들은 한글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글 성경이나 찬송가 혹은 기독교 세계관이 투영된 한글교재를 사용하여 한글을 가르치며 한글에 내재된 기독교 가치관을 전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의 필요성을 느낀 현지인들은 교회 방문이나 한국인 선교사들과의 교류를 보다 활발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문화선교의 접착으로서의 한글

1. 프란시스 쉐퍼의 변증학의 실천으로서의 한글선교

기독교 변증가이며 라브리선교회를 세운 프란시스 쉐퍼의 '변증학(Apologetics)'은 선교에 있어서 한글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매우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프란시스 쉐퍼는 문화를 전도의 접착점으로 삼았다. 쉐퍼의 변증학적 구조는 그가 진단한 20세기 문화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도 현대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전도 방법의 핵심이다.(성인경, 51)

쉐퍼는 문화를 복음 전도의 매개체로 사용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문화 변증학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요4:1-26)이나 바울의 아테네 설교(행17:16-34)에 잘 나타나 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문화를 중심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전제를 대화의 접착점으로 삼고 토론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은 '문화적 변증학(cultural apologetics)', 혹은 '문화적 전도법(cultural evangelism)'이라고 불렀다.(성인경, 51)

쉐퍼의 '문화적 전도법'은 상대방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접근하며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독교의 진리를 소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쉐퍼는 자신의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How should we then live?)'를 자신의 아들이자 영화감독인 프랭키 쉐퍼와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기도 했다. 영화라는 현대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예술을 접착점으로 삼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바울의 아덴설교 장면은 현지의 문화를 접착점 삼아서 행한 문화선교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사도바울은 우상이 가득 찬 아덴의 문화를 보며 마음에 분함이 일어났지만(16절) 우상을 파괴하는 격한 행동을 벌이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그들의 문화적 양태를 관찰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선교의 맥을 잡아갔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행17:22-23)

사도바울은 우상이 가득 찬 아덴의 문화를 보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아덴 사람들의 문화적 성향을 발견했다. 그리고 특별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쓰여진 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스의 다신(多神)문화는 일종의 기능적 개념으로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마다 신을 만들고는 그것에 의지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혹시라도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신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었다. 사도바울은 바로 ‘이 신’을 거론하며 아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을 설교했다.

사도바울의 복음전파 전략은 문화적 이해를 동반하며, 그 문화 안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을 접촉점으로 삼아 복음을 증거하는 문화선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쉐퍼연구소장을 역임한 제람 바즈(Jerram Barrs)는 그의 책 「현대문화 속의 전도」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사도바울의 에덴 설교를 언급하며 문화를 접촉점으로 하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설교의 대상자들과 다리를 만들어 가는 작업을 먼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믿는 믿음이 가지는 문제점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가 갖고 있는 옳은 것, 잘하는 것, 접근이 가능한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Barrs, 77).

이것은 세계적으로 한글 열풍이 불고 있고 한글을 배워서 읽고 쓰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젊은이들이 한글을 복음소통의 도구로서 삼았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가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

2. 선교를 위한 한글교육자의 양성 현황

한글을 접촉점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한글 선교는 태권도 선교와 같이 한국인의 자질과 재능을 살릴 수 있고 외국인의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선교사들이 선교의 접촉점으로 활용해왔다.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과 한류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선교지 교회를 통해 한글을 가르치며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금처럼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고 선교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인이란 누구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글을 통한 선교 활동은 선교사들의 가장 손쉬운 선교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2020년 12월 현재 168개국에 2만 2259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 국적의 선교사도 1435명을 파송했다. 개교회 파송 선교사와 해외 선교사역에 관여하지 않는 한인교회 목회자, 파송이 아닌 협력 선교사 등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세계에서 한국어 교육을 통한 선교 활동을 가능할 수 있는 선교사들의 수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선교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글 교육은 교육자가 한국어를 구사할 수는 있어도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글의 구조와 역사 등의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교수법을 통한 교육이 진행되기 어려웠고 고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으로 발전해나가기 쉽지가 않았다. 특히 목회 사역 중심의 선교사들에게 한글 선교는 선교전략의 중심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인 활동에 따른 효과를 거두기도 어려웠다.

선교현장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글을 배우고 싶은 현지인들이 늘어가고 있고 또한 한글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선교전략의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했던 한국어 교육은 한계성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직접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전문인 선교로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갖고 선교지의 교육제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은 선교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새로운 필요를 선교사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선교단체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2013년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함께 ‘선교사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육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을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선교지의 교포 및 선교사 자녀들과 한국과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현지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자 하는 선교사들을 한국어 교원으로 세움으로써 현지 한국어 교실과 민간문화원 또는 현지 대학교에서 사역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자를 양성하여 한글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이름을 알리고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함.

선교사들이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이 필수인 까닭에 이러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름방학 동안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전 과정 수료 시 한국어교원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120시간 정규과정이었다. 2017년부터는 안양대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는 외부의 전문 원격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온라인 교육은 총 3학기로 이루어지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수료 후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안내되었다.

여름방학 동안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온라인의 장기적인 대학과정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120시간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후 치르게 되는 한국어교원 3급 과정에 응시했을 때 선교사들의 합격률이 20%대를 웃도는 등 매우 저조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한국어를 적절하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능력을 배양하기보다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획득이 일차 목표인 까닭에 합격 여부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었다.

둘째는 막상 한국어교원 3급을 획득했을 때 대학과 같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었다. 세종학당이 세계 주요 도시에 건립이 되기 시작했고, 선교지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과목이 개설되는 일이 확대되고 있지만, 최소한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대학 전공자를 원하는 현지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3급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셋째는 사이버 교육의 확대를 통해 선교지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까닭이다. 2급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의 전공자이거나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로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사이버 교육을 통한 자격증 획득은 비교적 짐을 덜어주는 일이 되는 까닭이다.

코로나 19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그 참여하는 선교사들의 숫자나 효과는 아직 검증할 만한 시점에 이르지 않았다. 앞으로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한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IV. 한글교육을 통한 선교 전략

만인이 읽기 쉬운 한글의 세계화는 복음의 전파와 더불어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여는 날이 올 수 있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한글을 가르치며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문화선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장의 선교사들과 특수목적의 한국어로서 선교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전략으로는 성경의 교재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상황과 대상자에 따른 다양한 교재의 개발과 교사 훈련의 두 방향성과 상호협력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관련 학과 및 수업 개발의 필요성 등이었다(이란, 2021, 438). 구체적으로 선교목적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때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용 선교 한국어 어휘가 선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교사(교사)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함을 밝히기도 했다(박경현, 96).

특히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 교재의 출판과 전파는 선교전략에 빠질 수 없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한글 성경을 사용하거나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 교재의 출판과 전파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선교사와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⁵⁾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 어떤 문화를 어떤 관점에서 다룰 것인가는 전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에게 달려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해석하는 한국어 교과서가 개발되어 사용된다면 한글을 배우면서 성경과 교회, 그리고 기독교가 영향을 준 한국의 근현대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식의 확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와 선교사는 선교현장에 맞고 선교사가 적용하기 쉬운, 그리고 성경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모든 선교사가 교회 개척과 목회형태의 선교방법으로는 지금의 선교현장을 돌파할 수 없음이(최원진, 245) 자명하다.

5)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에서 만든 ‘함께 배우는 한국어’는 선교목적의 한국어 교재라로 출판되었으며 2006년도에 1권을 시작으로 3권(2010)까지 제작되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민현식 교수 및 그 제자들, 국립국어원 최용기 교육진흥부장이 직접 저술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예문을 사용했으며 한국어 학습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준별로 제작했다. 『함께 배우는 한국어 3』은 중학교 수준으로 제작되었다. 『함께 배우는 한국어 1』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교재로 제작되었다. 『함께 배우는 한국어 2』(2008)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교재로 제작되었다.

이를 위해 세계에 부는 한글 열풍이라는 선교현장의 변화와 한국 교회의 역량과 현실을 고려하여 21세기 한국 교회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새로운 선교전략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의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과 선교의 융복합 전문가 양성

선교와 한국어 교육에 능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을 접촉점으로 하는 복음의 전파는 기존의 선교사들이 2급이나 3급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장시간의 학습시간을 투입해야 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이 과정을 수행할 수 있지만, 한국어 교육을 통한 선교라는 특수목적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오로지 선교사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는 문제였다.

한국어 교육과 성경 교육 혹은 신앙의 전파가 체계적이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부산의 한 기독교종합대학에서 이루어졌던 선교학과 전공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 학부 안에서 하나로 엮여졌던 사례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

첫째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이 시대에 적합한 선교의 도구를 제공받으면서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은 과거 비해 선교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학 전공에 대한 지원자 수도 급격히 감소하여 전국의 4년제 대학 가운데 선교학과를 존속시킨 대학은 불과 세 군데밖에 남지 않았다. 선교의 깃발을 꽂으면 물려들었던 과거의 양상과는 사뭇 달라진 세속적인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때 일반 직업의 개념으로서 한국어 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를 통한 해외 진출 및 선교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점은 선교학 지원할 만한 동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교회는 미래의 선교자원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점이다. 선교와 함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원들의 활용 영역은 매우 넓다. 안으로는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과 그 자녀의 학습을 돕는 일로부터, 교회의 외국인 예배 활동과 해외의 교육 및 선교단체들과 연계를 통한 진출 등은 한글에 담긴 성경적 의미를 실천하면서 선교명령을 수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고 교인 수의 감소가 일어나는 현실에서 미래의 교회와 선교를 이끌어갈 자원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며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현실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선교와 한국어 교육이 결합된 전공은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함과 동시에 4년제 기독교 대학을 특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해외 교회와 선교사들과의 연대 및 네트워크의 활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교회와 밀접하게 연계된 것은 단지 선교목적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데 있는 것만은 아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글 창제에서 성경적 의미를 발견한 것처럼 교회와 선교라는 요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이 한국어에 대한 열풍이 불고 외국 대학에 한국어 전공과목들이 개설되기 이전에도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곳은 바로 교포들로 구성된 한인교회였다. 지금도 미국의 경우 재미한국

학교협의회(NAKS)가 오랜 전통 가운데 한국어 교육과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협의회에 등록된 한글학교의 상당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풀뿌리처럼 세계 곳곳에서 운영 중인 한글학교는 세종학당과 같은 정부 출연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한글 교육을 진행하며 현지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교육의 현장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접근하여 쉽게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있음을 뜻한다.

특히 교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독교 대학의 경우 교단에서 운영하는 선교조직이 있는 까닭에 선교사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교육 훈련에서부터 현장실습과 진로에 이르는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3.올라인(All Line:On Line+Off Line) 사역으로서의 선교를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선교는 모든 상황과 대상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교회를 둘러싼 상황과 문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선교는 이루어져 왔다. 이런 의미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병행된 선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육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서든지 학습이 가능하고 현장경험이 필요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는 전세계인의 생활문화에 변화를 가져왔다.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고 온라인으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공상과학 영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의 위험성이 종결된 이후라도 비대면 문화의 장점들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이 교육방법인 모여서 함께 학습하고 나누는 일은 여전히 필요하다.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속식을 같이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사실(마9:35)은 인터넷 시대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4.한국어 교원으로서의 현지인 양성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일에 있어서도 현지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현지의 한국어 교원이 이끌어갈 한국어 교육 현장은 과거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비록 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한국문화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역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 한글 교육의 가치를 전수하고 기독교 사상으로 한국의 구석구석을 변화시킨 것처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전공하는 현지인들이 기독교 신앙과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전략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한국어 교재의 발간 또한 현지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의 손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은 항상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될 때 그 효과를 발휘하게 마련이다. 현지상정이 능통한 사람은 현지인들이며 그들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자신이 경험으로부터 잘 인식하고 있다.

V. 결론

이 논문의 목적은 한글이 갖는 성경적 의미를 토대로 한국어 교육 열풍이 부는 현실에서 한글 교육을 통한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 실질적 대안은 4년제 기독교 대학에서 선교와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함께 양성할 수 있는 전공을 개설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독교 대학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을 통한 전문인 선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보면 학생들은 한국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사역에 관심과 필요가 매우 컸고,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에 있어서 한국어학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기술이 동반되어야 하며, 신념과 태도에 있어서 선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안희은, 2175). 선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이 두 전문영역의 융합적인 성격이어야 함을 뜻하고 있다.

기독교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은 두 부류이다. 한 부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라는 구체적인 도구를 가지고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며, 다른 한 부류는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동경하는 가운데 한글이 필요한 외국 학생들이다. 현재 이 두 부류를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독교 대학의 전공이 요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한국 학생의 경우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일반 사회에서 직장을 구하고 국내외적으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 적절한 보수와 안전성이 보장된 직장의 경우는 경쟁이 치열한 까닭이다. 그러나 선교에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정은 다르다.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와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 곳은 매우 많다. 기독교 신앙과 한국문화 모두를 함께 전파하는 데서 오는 자긍심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한국을 빛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이 만큼 좋은 전략은 다시 찾아봐도 없는 듯하다.

참고문헌

- 김동진(2019), 『헨리크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서울:참좋은친구
- 김흥식(2014), 『한글전쟁』, 파주:서해문집
- 나재운(2010), “개신교와 만난 한글”, 나라사랑 119, 2010 12, 338-368.
- 박경현(2016),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 에티오피아 한별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민정(2011), “훈민정음 서문의 두 가지 번역”, 코기토69, 29-52.
- 성인경(1998), 『아담과 문화를 논할 때』, 서울:낮은울타리
- 안희은(2020), “한국어 교육을 통한 전문인 선교에 대한 인식 연구”, 인문사회21, 제11권 2호, 2163-2175.
- 옥성득(2016),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서울:새물결플러스

- 애니 베어드(1908), 유정순 역(2006), 『따라 따라 예수 따라가네』, 서울:도서출판 디모데
- 이덕주(2010), 『한국교회사』, 서울:한국교회언론회출판부
- 이란(2021),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의 범위와 유형에 관한 연구 -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에서 대상자에 따른 유형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685-695.
- 임종권(2020), “한국 기독교 선교와 근대 학교 설립과정”, 한국기독교문화연구 15집, 39-67.
- 전택부(1980), “기독교와 한글”, 나라사랑 36, 130-144.
- 최원진(2015), “세계선교 현황과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한 전략적 제안”, 복음과 선교 제30집, 229-268.
- 최준식(2009), 『문기』, 서울: 소나무
- 한재영(2017),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의 회고-창제배경과 동기 및 목적 그리고 창제자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72, 71-124.
- G.H.존스(2013), 옥성득 편역, 『한국 교회 형성사』, 서울:홍성사
- 옥성득(2019), “한글과 기독교”, 기윤실 좋은나무, <https://cemk.org/14595/>(2021. 10.25 검색)
- Barrs, Jerram(1995), 한국라브리 번역위원회 역, 『현대문화 속의 전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